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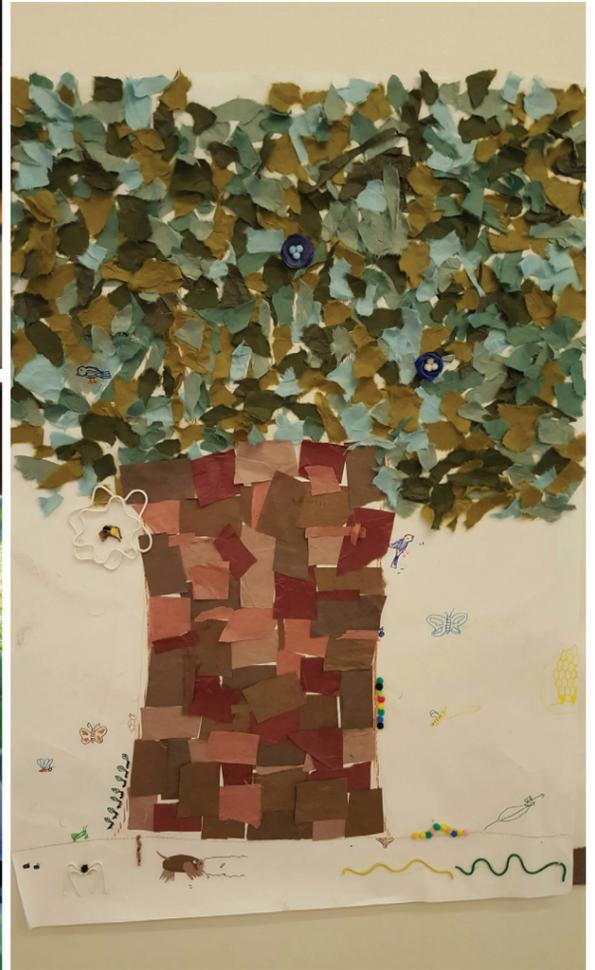


#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

2017  
봄호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파평면 두포리 127-19) T. 031-953-1625 | F. 031-953-1626 | E. bbanh@hanmail.net | http://www.nestofpeace.com



## 2016년 송년의 밤을 보내며

12월 30일, 어스름 저녁놀이 질 무렵 하나 둘 도서관으로 후원회원분들이 모여들었다. 한해를 보내는 의미로 준비한 '송년의 밤' 그리고 '애물단지 장터'. 삼삼 오오 한보따리씩 가져온 물품들을 꺼내어 놓고 16년 한해 평화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평품집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 유난히 바빴던 2016년 한해.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셨던 회원 분들의 발걸음을 떠올려보게 되는 자리였다. '평화도서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응사)'이나 '가족 모임' 등 활동 영상을 보며 서로 애썼다 다독이고 다음 해를 기약했다.

평화도서관의 1년을 돌아본 다음엔 각자가 들고 온 '애물단지' 경매를 시작했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 물건에 얽힌 각각의 사연들을 들었다. 경쟁이 붙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어 목소리가 한껏 높아지기도 했고, 얼굴 벌개져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난히 별이 반짝였던 밤. 올해 힘 주셨던 분들과 어울리며 내년을 기대해본다.

2016 여름평화학교 02 | 평화도서관 03-06 |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07-09 |  
평품소극장 영화 상영 10 | 회원 이야기 11 | SORA BREAD 12

발행처 평화평품은집 평화도서관 발행인 황수경 기획 명연파 편집 박소현 디자인 배경희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파평면 두포리 127-19)  
전화 031-953-1625 팩스 031-953-1626 이메일 bbanh@hanmail.net  
웹사이트 http://www.nestofpeace.com 《비매품》

한여름 밤 생명의 축제 7.30~31

# 이곳에서는 모두 함께 살아요

2016년 7월 30일 오후 1시. 평화를 품는 집으로 하 나들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 던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 모두 반가운 인사를 나누 었지요.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과 극단 '이야기 해결단'이 준 비한 연극 놀이로 평화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 해결단이 되어 도움을 청하는 생쥐 를 따라 마쓰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섬을 되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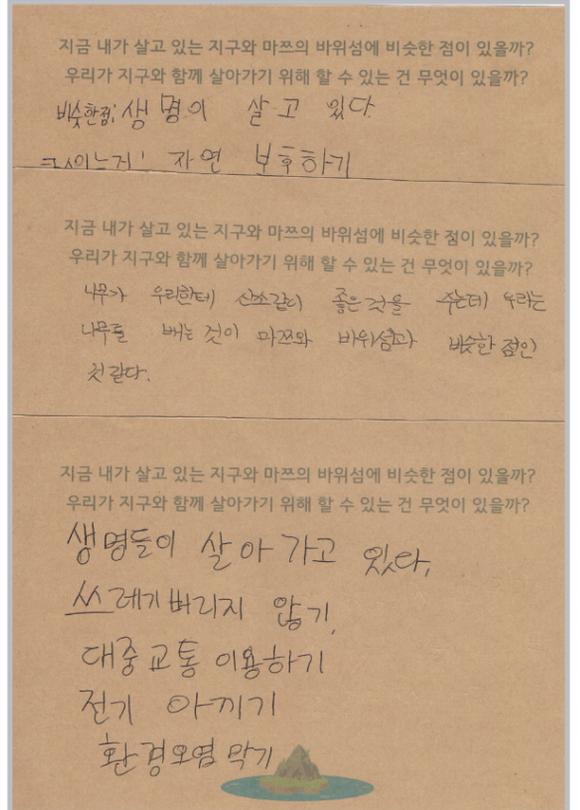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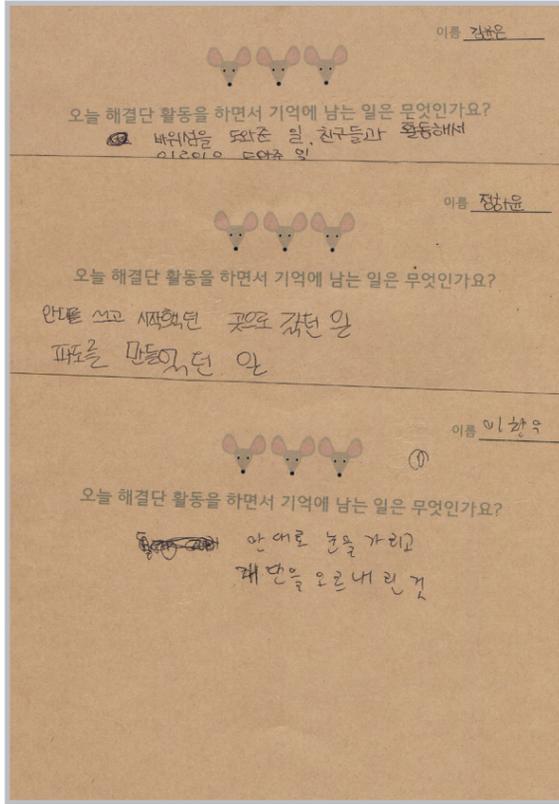
도서관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진행했던 참 여연극은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서로와 어울리 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연 다음에는 조용히 다큐 <흙>을 보았 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천 배 확대된 작 은 미생물과 땅속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숲에서 얼마 나 많은 곤충들과 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페와 채집통을 들고 직접 숲으 로 갔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굴하지 않고 숲속을 한 바퀴 돌며 평소에 그냥 스쳤던 많은 생명들과 만났 습니다.

그 다음, 《나무 하나에》 책을 읽고 우리들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총동원해 나무를 직접 그려 보았습 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살고 있는 생명, 몸통과 줄기, 잎에 살아 있는 많은 생명들이 아이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까 보았던 곤충을 그리자니 생각이 안 나네?' '아 까 영상에서 봤던 땅속 생물 그게 뭐더라?' '여기는 이걸 붙일까?' '아니야. 한지를 찢어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두세 명씩 머리 맞대고 즐거우면서도 진지하게, 어 떤 나무를 그릴지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 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선생님께 여쭙보거나 책을 열심히 찾아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나무에는 온갖 생 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엮보 입니다.

완성된 나무를 설명하는 시간. 박수도 많이 받고 칭 찬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태 이야 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비는 나무에 집을 짓지 않 고 집 처마 아래에 짓는다는 것이나 뽕꾸기는 동지를 만들지 않고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이야기도 들었 지요. 그리고 숲속에 썩어 쓰러진 나무는 많은 미생 물들이 살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불빛 하나 없는 밤, 숲속에는 무슨 일이 일

어날까요? 모두 숲속에 조용히 앉아 냄새와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는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것도 경험해보게 되었습니 다.

이제 돌아갈 시간. 짧았던 1박 2일을 아쉬워하며 부 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지낸 내용을 담 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어떻 게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시간을 체험하지 못 한 부모님들도 앞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 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평화학교 때 또 만나요.



# 2016년 평화를 위한 작은 전시

2016년 평화를 위한 작은 전시는 권윤덕 선생님의 《나무 도장》 출간에 맞추어서 제주4·3과 광주 5·18 기획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았구나 하고 주억거리면서 잊지 말아야지 다짐하기도 합니다. 두렵고 아픈 역사 앞에서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당면성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러한 돌아봄이 사건의 고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전시의 큰 줄기는 제주가 고향이신 강요배 선생님의 《동백꽃 지다》의 주요 장면을 발췌해 4·3을 당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요배 선생님은 이 책에서 '살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걷어 내는 일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셨습니다. 조용히 이 문장을 곱씹으며, 긴 호흡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 숙연해지더군요. 제주 사람들이 겪은 일을 어찌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석범 선생님의 《화산도》를 읽었다고,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을 읽었다고 우리가 제주4·3을 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한낱한시에 이집 저집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기에 맞춰 가는 소리 밤하늘로 치솟았을 그 때에도, 알뜰게도 제주 바다는 시리도록 아름다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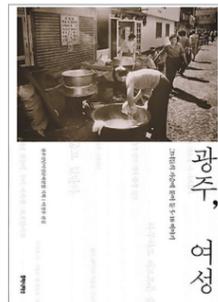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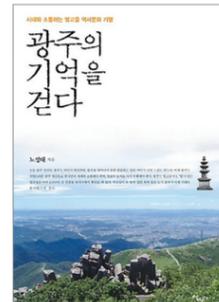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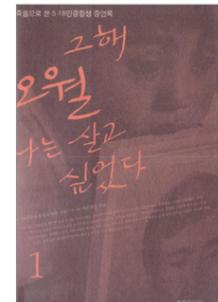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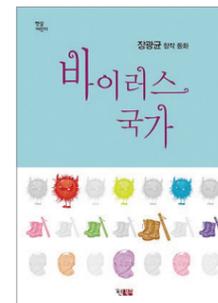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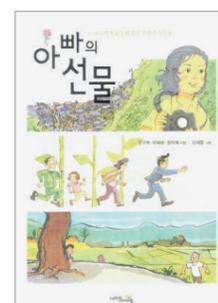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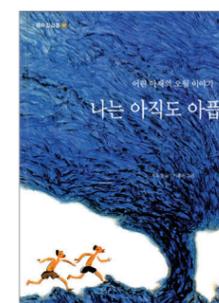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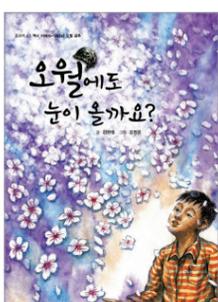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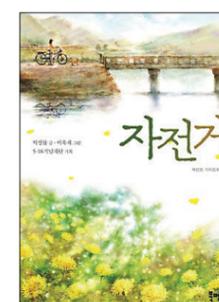
그런가하면 광주5·18은 또 어떤가요? 재작년 이맘때 평화를품은집이 개관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준비했던 행사가 5·18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주먹밥 국국 뭉쳐서 오신 분들께 대접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문학작품으로 5·18을 처음 접한 건 박상철 선생님의 《너는 스무 살, 아니 만 열아홉 살》이었습니다. 이제 갓 스물 살이 된 가난한 고학생 영균이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월산댁은 장례식까지 치른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무덤을 파내려갑니다.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던 아들이었을까요. 꿈에서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던 아들이지만 시체 썩는 냄새만 쉰하니 올라옵니다. 시대의 아민과 소용돌이 속에서, 한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을 그리 엄마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죽어간 아들의 이야기가 기가 찹니다.

서진선 선생님의 《오늘은 5월18일》은 소담한 일상의 풍경으로 5·18을 전합니다. 담담하게 그려낸 그림책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았는지,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지 등등이요.

5·18은 우리에게 그리 먼 역사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빼앗아 버린 5·18은 광주 사람들만의 것만은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가 겪었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공감하는 일만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 '숨' 책방에서 좋은 책을 소개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화도서관에서도 전시글과 목록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회,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 평화도서관에서 추천하는 광주 5·18 책

						
5.18 그리고 역사	26년	광주, 여성	광주에 가고 싶다	광주의 기억을 걷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기차길 옆동네	꿈에게 길을 묻다	누나의 오월	너는 스무 살, 아니 만 열아홉 살	새벽 기관차 박관현 평전	바이러스 국가
						
빼앗긴 오월	소년이 온다	아버의 봄날	아버의 선물	나는 아직도 아름답다	연이동 원령전	오늘은 5월 18일
						
오월에도 눈이 올까요?	오월의 달리기	오월의 사진첩	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까?	자전거	큰 아버지의 봄	외할머니의 분홍 원피스

대담 : 소년, 소녀의 눈으로 제주4·3을 이야기하다

## 소년, 소녀의 눈으로 '제주4·3'을 만나다

제주4·3 68주년을 하루 앞둔 4월 2일,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분들이 평화를 품은집에 모였습니다. 추모의 촛불을 밝히고 양지석 님의 대금 연주로 문을 열었지요.

대담은 한겨레 신문 허미경 기자의 사회와 제주에서 온 강중훈 시인, 《나무 도장》의 권윤덕 작가의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4·3을 겪은 소년 강중훈과 소녀 시리가 만난 것이지요. 낳아주신 어머니를 잃은 시리의 이야기와 여덟 살 어린 나이에 실제로 가족들을 잃은 강중훈 시인의 담담한 이야기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 《나무 도장》 출간 기념회

이 한편의 책을 만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평화를 품은집에서 함께 기획한 책이기에 권윤덕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세상에 내놓은 책인지 알고 있었지요. '제주4·3'을 공부하며 당시 자료를 찾고, 연구자들과 유족들을 찾아다니고, 독자들을 만나 피드백을 받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었지요. 이 과정이 담긴 짧은 영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어,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님과 충북작가회의 회장님이 먼길 오시어 정말 필요한 책이 출간되었다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나



무 도장》을 읽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윤덕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는 이 책이 또 다른 감동과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최하연 양이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모두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또 하나, 《나무 도장》은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은 다섯 명의 작가가 만드는 평화길찾기 시리즈 중 첫 권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기 주제를 정하고 작업 과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지요. 이 자리를 빌어 다른 네 분의 작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도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발행될 작품을 향해 많은 분들이 기대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 참여 연극 : '나무 도장' (극단 올리브와 찐콩)

극단 올리브와 찐콩이 보여준 참여 연극 '나무 도장'은 우리 모두가 가슴깊이 4·3을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삼촌과 어머니, 시리라는 각각의 인물이 던지는 질문에 관객들이 고민하게 되고 또 관객의 질문에 인물들이 답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4·3과 그 이후까지 계속되어 온 아픔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여해 도서관이 꽉 차고, 소극장 밖에서도 현장 중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던 행사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제주 4·3을 가슴으로 느끼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 '응사모'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평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 아래 2016년부터 새로운 활동을 꿈꾸는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매달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간혹 영화도 함께 봅니다. 때가 되면 가보고 싶었던 작은 책방이나 도서관 등 나들이도 갑니다.

### 함께 읽은 책

《태양의 아이》 《오키나와의 목소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나무 도장》 《모르는 아이》 《이것이 인간인가》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각자 읽었던 시집' 《시인 동주》 영화 <동주>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두려움과의 대화》 《밤의 눈》

### 나들이

윤동주 문학관, 청운 문학도서관, 고창 해리마을



평화가족

# 우리 가족은 도서관에서 자라요



평화가족은 매달, 토요일 중 하루를 정해 만나 왔습니다. 한 가족씩 돌아가면서 재미난 일들을 궁리해 오면, 그 가족의 주도 하에 배우고 함께 놀며 하루를 보내는 가족 모임입니다. 벌써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호정이 호준이 유준이네 가족

호준이 : 가족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를 해서 기뻐다. 우리 가족이 진행한 가면 만들기 시간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서 기뻐다.

호정 :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해서 좋았다.

유준 : 좋아요.

아빠 :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월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 가족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거 참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통해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어요. 또 다른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에 감사합니다. 평화가족 파이팅!!!

### 준호네 가족

평화를 품은집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맑고 신선한 공기를 주는 행복한 곳이다. 비록 집에서부터 평품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힘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들과 친해지고 재미있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 이제는 평품집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새싹이 돋는 모습, 점점 진행되는 나뭇잎들, 가을 낙엽의 풍성함, 겨울의 고즈넉함. 이 모두 함께 만나는 여러 가족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평화를 품은집에서 우리의 마음을 쭉쭉 키워 가면 좋겠다. 평화를 품은집 감사합니다.

### 지선이네 가족

나는 평품집에 와서 여러 가족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호준이네 가족이 진행한 가면 파티가 제일 재미있었다. 한 달에 한 번, 평품집 오는 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오면 기분이 좋다. 평품집에는 낭구와 밤이라는 개가 있고 친구들도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평품집엔 맑은 공기가 떠다닌다.

### 민서네 가족

평품집에 와서는 액체 괴물, 꽃 만들기, 산책, 가족신문, 책 읽고 내용 말하기 등을 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액체 괴물이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꽃 만들기이다.

### 그림이네 가족

평품집에 올 때는 '오늘은 어떤일이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뛩니다.

지선이네는 새콤달콤 김밥 만들기, 준호네는 재미있는 캘리그래피, 민서네는 즐거운 책 읽고 그림 그리기, 평품집에서 하는 샤락샤락 탁! 신문 만들기. 마지막으로 우리 집 변신 꽃 만들기 호준이네의 댄스, 댄스, 댄스!

이렇게 다섯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평품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집입니다.

평화를 품는 집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맑고 신선한 공기를 주는 행복한 곳이다. 비록 집에서부터 평품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힘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들과 친해지고 재미있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 이제는 평품집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새싹이 돋는 모습, 점점 진행되는 나뭇잎들, 가을 낙엽의 풍성함, 겨울의 고즈넉함. 이 모두 함께 만나는 여러 가족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평화를 품은집에서 우리의 마음을 쭉쭉 키워 가면 좋겠다. 평화를 품은집 감사합니다.  
(장관호 가족)

민서네 가족  
평품집에 와서는 액체 괴물, 꽃 만들기, 산책, 가족신문, 책 읽고 내용 말하기 등을 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액체 괴물이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꽃 만들기이다.

나는 평품집에 와서 여러 가족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호준이네 가족이 진행한 가면 파티가 제일 재미있었다. 한 달에 한 번, 평품집 오는 길.  
평품집에는 낭구와 밤이라는 개가 있고 친구들도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평품집엔 맑은 공기가 떠다닌다.  
2016. 6. 25일 (토) 박지선

평화를 품는 집에 올 때는 '오늘은 어떤일이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뛩니다.  
지선이네는 새콤달콤 김밥 만들기, 준호네는 재미있는 캘리그래피, 민서네는 즐거운 책 읽고 그림 그리기, 평품집에서 하는 샤락샤락 탁! 신문 만들기. 마지막으로 우리 집 변신 꽃 만들기 호준이네의 댄스, 댄스, 댄스!  
이렇게 다섯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평품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집입니다.  
3호

호준 : 가족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를 해서 기뻐다. 우리 가족이 진행한 가면 만들기 시간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서 기뻐다.  
호정 :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해서 좋았다.  
유준 : 좋아요.  
아빠 :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월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 가족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거 참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통해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어요. 또 다른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에 감사합니다. 평화가족 파이팅!!!

## 그림책으로 전쟁과 평화를 들여다보다

평화를 품는 집은 말 그대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집이다. 평화를 품는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평화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련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생각이 깊어졌다. 작년부터 파평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이 계속되었다. 파평초에서는 학년별로 평품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평화 수업을 해오고 있다. 4학년 친구들과 세 번에 걸쳐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평화 수업을 채웠다. 목표는 하나였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파주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첫 시간에는 『병사와 소녀』를 함께 보았다. 아니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꼬박 45분. 덧붙이는 말 하나 없이 책 한권을 오롯이 보고 듣는 시간이었다. 괜찮을까 여기저기 지루해요 원성이 나오진 않을까하는 우리의 걱정은 보란 듯이 날아갔다. 마치 우리가 눈앞에 총알이 딱 하고 멈추어 선 전쟁터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아이들은 전쟁터, 사단 사령부, 세계평화기구 회의 장소, 무기 업자들의 거래 공간 속으로 각각 들어가 보았다. 각각의 입장이 달랐다. 밖에서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말이다. 작전본부에서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평화협정을 맺는 회의 장소에서는 전쟁을 언제까지 끌어야 유리한지 고심하는 말을, 무기 업자들은 이 전쟁이 끝내지 않을 것만 같은 말을.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전쟁의 속성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움직임들을 보았다. 누구도 이 병사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아니, 병사의 존재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첫 수업의 목표는 전쟁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누구를 위해 내가 이 전쟁터로 왔는지를 말이다.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여보았다. 아이들은 분명했다. "전쟁을 아예 안 해야 해요." "나도 적군도 어차피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없애야 해요." "슬퍼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죽을 텐데……." 아이들은 전쟁에 얽혀 있는 수많은 권력과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마주한 셈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서진선 작가의 그림책 『엄마에게』를 보았다. 두 달만 있다가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아이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가엾어요. 너무 불쌍해요. 못 살 거 같아요." 자기 또래여서일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

이어서 우리는 한국전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명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자료와 더불어 상황판을 만들어보았다. 저마다 설명글을 다시 읽어가면서 전쟁의 진행상황에 따라 사진을 알맞게 배치해보고 각각의 사진에 제목을 달아보았다.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영영 보고 싶은 이산가족', '네 소원이 무엇이냐, 통일이옵니다' 아이들이 재치 있게 붙인 제목을 통해, 어른인 우리가 부끄럽기도 한 시간이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된다면 나는 북한친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평화카드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보았다. 미리 제시된 카드 말고도 우리 집에 일주일 홈스테이 시켜주기, 우리 엄마 밥상 시식권, 우리 파평초등학교 구경시켜주기 등 다양한 방법을 저마다 내놓았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을지 토론했다. 수십 장의 평화카드에서 모둠별로 추리고 추려내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카드를 골라, 왜 골랐는지 서로 이유도 물어보고 들여보았다. 언어를 먼저 통일해야 하니까 남북한 통일 국어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입맛을 통일하는 게 먼저요 요리대회를 해마다 개최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이들은 통일이 되면 쓸 수 있을 만한 상품권을 받았다. "통일이 되면 관광님이 이걸 진짜로 쓸 수 있게 해 주신대." "야, 나는 북한음식시식권이야." "내가 평양호텔가서 쓸게." "진짜로 통일됐는데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요?" "야, 그냥 지팡이 짚고 와." "오늘 죽는데도 통일이 안 되면요?" "음, 그럼 너네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겨. 통일이 되면 평화를 품는 집에 가서 관광님을 만나라 하고 말아야." "야, 그래도 죽기 전에는 통일이 돼야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통일이 먼 훗날 이야기만은 아니기를 바래보았다. 세 번의 수업으로 만난 기록을 엮은 한 권의 책을 함께 보는 것으로 전체 수업을 마무리했다.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걱정이 많았다.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어렵다고 지겹다고 하면 어떡할지, 이런 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적잖이 무거웠다. 살얼음처럼 긴장된 우리 마음을, 아이들은 첫 시간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지막 진짜로 통일이 되면 만나는 시간까지 정하는 순간까지 어느새 소리 없이 녹여주었다. 늘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다. 장난끼 쑥 뺀 아이들의 진실함에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글 송영희

## 앞장서 알려주기 보다는 스스로 찾아 구석구석 보고 질문하는 평화도서관 체험

6월27일 도봉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프로그램 마지막을 평화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관련 이야기를 했다면 이곳 평품집에서는 천천히 진지하게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을 둘러 보며 강연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습된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진중하게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전 일찍부터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는 친구들.. 더운 여름 쉬는 날 도서관 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언덕을 오르며 평화롭지 못하다며 툭툭대던 친구들의 표정이, 사서 선생님의 의미 있는 책읽기에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앞장서 알려주기 보다는 스스로 찾아 구석구석 보게 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충명하게 핵심을 잘 보고 오더군요. 각자가 보고 온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니 훨씬 더 좋았습니다. 처음 생소하게 들려오는 제노사이드도 직접 가서 열심히 적어오고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도 진지하게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한 여자 친구가 조용히 저에게 세세하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평화책도 읽고 다른 친구가 읽은 책도 보며 도서관을 여유 있게 보고 갔습니다. 제주43 그림책 《나무 도장》을 진지하게 듣던 친구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 또 보자.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을 둘러보고 난 후 함께 이야기 하고 평화나무를 만드는 어린이들

평화학교 2016.1.9~11

# 홀로코스트, 연극으로 만나다

눈이 소복히 왔던 1월, '홀로코스트, 연극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전하기까지 유대인 600만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 인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누스 코르차'와 그가 지키려 했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코르차 박사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공연》에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고아원 선생님들이 보여준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이들의 생활과 생각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에 있는 작은 고아원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 지역에 갇혀 외부와 격리되게 되면서, 점차 유대인 고아들을 위한 먹을 것과 후원 물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 곳이었으니 당연히 아이들 얼굴에서 생기도 사라지지요. 거리엔 전쟁고아가 넘쳐나고 고아원 앞에도 총을 든 경비병이 삼엄한 감시를 썼으며 어느 지역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죽었다는 소문이 질게 들려오는 상황... 이 모든 게 절망스럽게 느껴졌지요.

이때 고아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연극 <우체국>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지내는 병든 소년 '아말'의 이야기입니다. 아말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그날을 기대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꽃파는 소녀 '수다'가 그를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꽃을 올립니다. 아말의 모습 위로 고아원 아이들이 겹쳐져 보입니다. 이 고아원 밖으로, 게토 밖으로 이제 나가도 좋다는 전령을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 이 시대에 다시 전하는 간절한 마음

평화를 품은집에서는 청소년 캠프 몇 달 전부터 연극 대본을 쓰고 연출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 두 분과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캠프를 연극으로 꾸려보자고 결정되자, 먼저 청소년 아이들과 연극 연출을 해오신 안창도 선생님께서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공연》을 대본으로 각색해 주셨습니다. 안창도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해란 선생님과 평품집 식구들이 붙어 구체적인 상황을 정했습니다.

연극에 들어가기에 앞서 몸을 풀고, 홀로코스트란 무엇인지 공부도 했습니다. 배역을 소화하려면 시대 상황과 당시 고아원 아이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코르차의 배려와 애정,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었던 고아원 생활, 죽음을 앞에서도 서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연극에 참여한 친구들은 배역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종일 대본을 가지고 다니며 대사를 외웠습니다. 동선을 짜고 시선 처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지요. 결국 연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손을 맞잡고 가야만 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도 연극이라는 방식도 생소했을 아이들이지만, 반짝이는 눈빛과 진지한 태도, 몸을 움직이며 친밀해지는 관계들이 매 순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다희 :** 처음으로 연극 준비를 했다. 대본을 받고 대본을 외우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즐거웠다. ♡ (그림)

**이한솔 :** 연극준비를 하면서 처음보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쿡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김진희 :** 일단 연극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다들 성격이 좋으셔서 빨리 친해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도 있었다. 그 덕분에 그 다음날 재밌게 웃을 수 있었다.

**안상현 :** 밥이 맛있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체적 활동 참여가 가능했다. 선생님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라 '노동'이라기보다 '향유'에 가까웠다.

**강성우 :** 연극을 처음 해봤다. 건물 구조가 정말 신기해서 재미있게 놀았다. 여기서 만난 애들도 재미있었다.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서 좋았다. 그런데 파주가 참 멀다.

**강승희 :** 밥이 너무 맛있었다. 간식도...♡ 처음에 와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서로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고 각 지역에서 온 친구들끼리 지내서 심심하기도 했는데 연극 연습을 같이 하면서 같이 대사도 외우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두 번째 날 저녁에 노래도 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았다. 마지막까지 연극!!! 잘 마쳤으면 좋겠다.

**김향난 :** 밥 많이 먹고 간식 많이 먹어서 힘들었다. 내가 생각한 캠프와 많이 달랐다.

**조준훈 :** 평품집 캠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다. 사실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에 대한 탐구와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은 마음에 들었지만,

연극이라는 측면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캠프는 말 그대로 예상 외였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두 분이셨고, 나머지는 나와 동갑 혹은 한 두 살 동생이었다. 그 친구들과의 3일은 즐거움 그 자체였고,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방학이 돼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나의 생활습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웃고 떠들고, 연극 준비를 열심히 해갔던 과정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 내년에도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짧은 시간동안 리딩과 아이들의 성량, 개성들을 파악해 역할을 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 역할에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하더군요.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목소리를 꺼내 몸으로 마음껏 표현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대본을 들고 목이 터져라 외우고 뒤돌아 몰래 숨어 또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간혹 거침없는 지도생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호통에 서러운 눈물도 보입니다. 대본을 외우고 동선을 익히고 음악에 맞춰 춤을 완성해갔습니다. 열일곱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을 즐거운 고생이었겠지요. 더구나 관객 앞에서 내가 아닌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한다는 두려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개성들이 모이다보니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이내 서로 보듬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이들에게 도리어 한 수 배워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한명하명 2박 3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를 품은 집 2016 겨울 평화 학교

## 홀로코스트, 연극으로 만나다

평화를 품은 집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사건을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를 청소년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 절망의 시절에 유대인들은 '게토'라 불리는 거주 지역에 갇혀 차별받거나,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지요. 그중에서는 코르차 박사처럼 고아가 된 아이들과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의 한 고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은 책,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공연》을 인공소로 표현해보고 그 속에서 전달되는 평화의 의미, 인간의 의미 그리고 고인간의 분절에 대해 느끼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떠나는 겨울 여행에 함께할 청소년들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16년 1월 9일(토) 14시 ~ 11일(월) 15시
- 대상 : 청소년
- 모집인원 : 15명
- 신청기간 : ~ 2015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031-953-1625(선착순 접수)
- 참가비 : 17만원

1월 9일(토)	1월 10일(일)	1월 11일(월)
인사 나누기 평화를 품은 집 안내 홀로코스트 알기 연극 기획	특강 : 제노사이드의 모든 것 영화 <코르차> 관람 연극 연습	연극 연습 공연

2016 겨울 평화 학교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엔 학년·학년별 심리 연극 지도 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간대별 프로그램으로 관계의 재구성이란 역할을 연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재난사무국전, 서울평화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화를 품는 집  
평화도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평화교육장 다락갤러리 책키네 Sora Bread

443-883 경기도 파주시 평방산로 389번길 42-190(파평면 우포리 127-19)  
TEL: 031-953-1625 / FAX: 031-953-1626 / e-mail: nest@nestofpeace.com  
http://www.nestofpeace.com

### 평화책 보따리가 있어요

201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마을 속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속 마을' 사업을 진행했다. 바로 '평화책 보따리&이야기 보따리'이다. 좋은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끼리들을 보따리 안에 넣어 마을 안으로 찾아가자는 바람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 보따리는 김수민, 박희옥, 박찬교, 송영희, 황수경이 함께 긴 시간을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선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 대상자에 대한 고민, 또 대상에 맞는 책 선택, 선택된 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효과적일지 고민했다. 노인정을 찾아가는 책보따리는 할머니들의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책과 손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한지거울 만들기를 기획했다. 군부대방문의 책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정하고 활동으로는 조금이라도 웃음을 주기위해 놀이판을 만들고 그 놀이판에 게임, 별칭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청소년, 아동, 유아, 엄마를 대상으로 잡

아 다양한 책과 활동이 담긴 다섯 보따리가 만들어졌다.

파평면에 있는 부대와 지역아동센터, 노인정을 찾아갔고,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어린이들을 만나 책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문제집만 보다가 그림책을 읽고 자기 안의 갈등을 풀어낸 청소년들이 있었고, 그림책을 처음 읽고 눈시울이 붉어진 마을 할머니도 계셨다. 가장 큰 장점은 마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으로 찾

아가고 그림책 읽는 재미를 보급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보따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연말 워크숍 때 사례발표를 했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은 일본 도서관 탐방도 하게 되었다. 2016년 올해는 찾아가는 보따리 사업과 평화책 도서 목록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 평화로 만나는 우리 마을 이야기

평화도서관이 위치한 파평면 밤고지(밤꼬지/방고지) 마을에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로 변했고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다. 미군들이 드나드는 상점과 술집이 생겼고, 술집 근무자만 500명 가까이 몰려들었다. 아이들도 많아져 초등학교에서는 2~3부제로 수업을 했던 마을... 1972년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난 지금, 그때의 풍경과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그 시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 가슴 한 구석에 박혀 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들어보고,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나 기록들을 함께 공유해 '마을 지도'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당시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이야기, 미군부대와 마을의 소통 창구였던 '한미친선회' 이야기, 옆집에 살던 흑인 동생 마리스와 학교 다닌 이야기 등 울고 웃고 아프기도 했던 과거의 파편적인 기억을 모아보는 활동은 개인과 마을 차원에서 소중한 경험이었다. 마을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총체일 것이다. 한국전쟁과 미군부대 주둔시기를 겪어낸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진 자료를 보면서 그 시대 마을 주민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밤고지

로 들어가보자.

- <평화로 만나는 우리 마을 이야기> 중에서...



2016년도 평화로움은집 기획전

**문산임시포로수용소와 한국전쟁 포로전**

11월 19일, '문산임시포로수용소와 한국전쟁 포로전' 행사가 있었다.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한국전쟁 포로들이 머물렀던 파주 문산리 임시포로수용소와 포로교환 이야기를 전갑생 교수님의 강연과 사진 전시,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보고 듣는 시간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된 사람들이 휴전을 앞두고 문산과 판문점을 통해서 남인지 북인지 제3국인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포로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포로들은 문산포로수용소라는 마지막 공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사진전은 '포로'라는 존재를 돌아보고,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던 문산리 '임시수용소와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평화의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한다.



전시 사진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미국 국립 문서기록 관리청에서 수집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전**

- 학살 위에 세운 나라 크메르루즈의 '민주캄푸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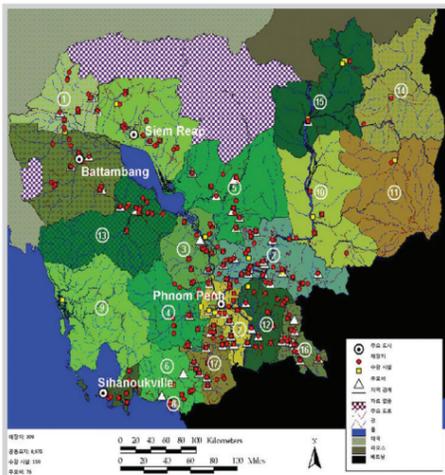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가 제정한 헌법 서문에는 '화합과 평화, 행복과 평등, 정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득한...' 등의 문구가 나온다. 언뜻 보서는 민주캄푸치아국에서 자국민 200만여 명이 학살된 일명 '킬링필드'가 자행되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폴 포트의 민주캄푸치아국이 수립된 1975년 4월 17일부터 베트남이 폴 포트를 몰아내고 캄보디아를 통제하게 되는 1979년 1월 7일까지 크메르루즈khmer Rouge 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 학살, 기아, 숙청, 질병 등의 이유로 죽어간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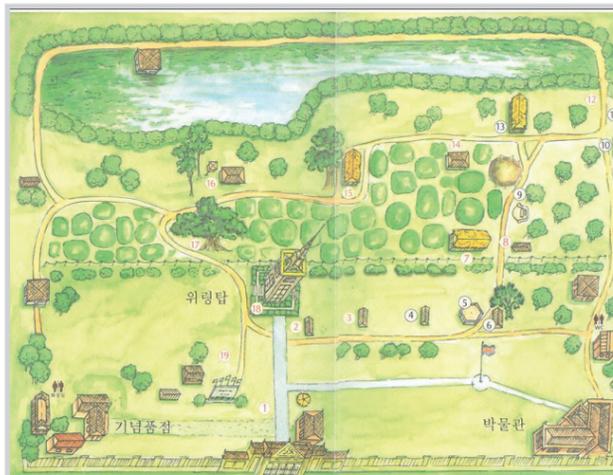
평화를 품은집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은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기억하며', '난징 대학살의 기억 마주하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100'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노나 사상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캄보디아 킬링필드' 전을 기획하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권력 집단은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끔찍한 역사를 반복한다. 이상적인 국가 '민주캄푸치아'를 만들고자 했던 크메르루즈의 만행 '킬링필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프놈펜 투올슬랭tuol sleng 학교를 개조하여 만든 S-21교도소, 킬링필드 무대로 알려진 끄엥 엑Choeng Ek을 직접 답사하여 찍은 사진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S-21의 고문 장면



캄보디아 제노사이드 지도(1975~1979)



대학살의 현장 킬링필드, 끄엥 엑 안내도



대학살의 현장 1:S-21 교도소

## 2016년 평화를품은집의 영화 상영은?

한 권의 좋은 책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품은집 평화소극장에서는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평화와 인권, 환경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평화**와 관련해서는제노사이드, 학살, 전쟁, 국가 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를,

**인권**과 관련해서는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안전을 지킬 권리 등 **인간의 기본권**을 다룬 영화와 인종·성·신체상의 문제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를,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기나 물, 흙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온갖 **생명**들에 대한 영화와 핵무기,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지구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다룬 영화 등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했습니다.

### | 영화 상영 목록

- 1월 <인생은 아름다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사라의 열쇠>
- 2월 <블러디 선데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비정성사>
- 3월 <천상의 소녀> <내 이름은 칸> <르벨> <아이 엠 샘>
- 4월 <비밀> <호텔 르완다> <잃어버린 사진> <종달새 농장>
- 5월 <내 나이가 어때서> <오월 사랑> <블러디 선데이> <마이 리틀 히어로>
- 6월 <블랙> <워터월드> <킬링필드> <블러디 선데이>
- 7월 <작은 연못> <학교 가는 길> <태백산맥> <인 어 베러 월드>
- 8월 <스쿨 오브 락>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카리쿠와 마녀> <해리슨의 꽃>
- 9월 <숲의 전설> <토끼 울타리> <아름다운 편지> <로맨틱 레시프>
- 10월 <신부의 편지> <토끼 울타리> <헬프> <카리쿠와 마녀> <해리슨의 꽃>
- 11월 <버터플라이> <이고르와 학의 여행> <클라우드> <블랙>
- 12월 <천국을 향하여> <진리의 13소녀> <프로스트 VS 녹슨> <에너미 라인스>



<인생은 아름다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이엠샘>



<잃어버린 사진>

2017년에는 달마다 '이달의 영화'를 선정하여 매주 일요일 2시에 상영합니다. 상영할 영화는 평화를품은집 홈페이지(www.nestofpeace.com) 소극장 게시판에 매달 공지합니다.(미리 예약해 주세요. 단체로 오시는 경우는 특히 부탁드립니다.)

| 시설 이용료 3,000원

| 문의 031-953-1625

## 추억 다듬기

2001년 6월, 파주 교하 다들리에서 태어난 어린이도 서관 '꿈꾸는교실'. 당시 도서관을 찾아주셨던 많은 이용자 분들과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평화도서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를 이 지면에 담아내려 합니다.

엄마가 나를 유모차에 태운다. 유모차가 덜컹거린다. 나는 두 살이다. 시키면 유리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여긴 어디?

나는 그곳이 막 뛰어다녀도 좋을 운동장처럼 보인다. 빵 트인 공간 옆으로 책장에 책들이 한가득 있다. 이층처럼 보이는 곳(복층)에는 모르는 이모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그란 선생님이 엄마와 나를 반가이 맞아준다.



엄마가 나를 매일 매일 이곳에 데리고 왔다. 이곳이 곧 나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느 날부터가 엄마는 이곳에 오는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엄마의 그림책 이야기 시간. 슬프면 울상을 짓기도 하고 즐겁게 까르르 같이 웃으면 더 재밌어진다.

넓디넓은 이 공간에서 언니오빠들과의 놀이는 끝이 없다. 나는 요리 숨고 소리 숨고 숨바꼭질을 한다.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뿌린다. 가위질을 한다. 조물조물 염색도 한다. 소꿉놀이, 훌놀이, 놀이하다 토라져 울기도 한다. 그래놓고 또 같이 논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본다. 이름을 짓는다. 푹푹 딱 망치질도 한다. 책을 쌓는다. 집을 짓는다. 인형극도 본다. 뛰고 뛰고 또 뛰다. 놀이의 끝은... 없다. 책그림을 구경한다. 맘에 드는 책은 보고 또 본다. 그러면서 나는 자란다.

엄마는 도서관에서 더 즐거워 보인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엄마는 도경이보다 도서관을 더 사랑하지?" 엄마가 깜짝 놀란다. 나를 꼭 안아준다. 어쨌든 난 우리 엄마가 좋다. 우리 엄마 한 번 빠지면 잘 헤어 나오지 못한다. 엄마는 사서가 되어 온갖 일을 한다. 난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치만 가끔은 집에 있고 싶다. 집에서 나오기 싫다. 언제쯤 혼자 알아

서 다닐 수 있을까? 난 이제 다섯 살인데... 내가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일은 만화책을 번호 순서대로 잘 꽂는 거다. 거꾸로 꽂힌 책을 찾아 바로 꽂는 일도 무지 재밌다.

꿈꾸는 교실이 출판단지로 이사했다. 도서관에 전에 없던 예쁜 책장과 소파, 나무로 만든 놀이공간이 생겼다. 우왕~ 대박이다. 나는 꼬마사서가 된다. 사서가 되어 대출과 반납을 해줄 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마치 어른이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이곳을 장악한 몇몇의 최정에 꼬마멤버가 된다. 히히. 우리 멤버가 함께 있으면 그저 신나고 재밌다.

실뜨기, 공기놀이, 여우야여우야뭐하니, 수건돌리기, 8자놀이, 땅따먹기,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멀리뛰기, 동대문을열어라, 술래잡기, 오징어, 비석치기... 우리들의 골목놀이는 날 저무는 줄 모른다. 우리 얼굴을 넣어서 책도 만들어 본다.

생각해보면 두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내 인생은 꿈교가 전부였다. 물론 초등학교가 되어서도 변함 없이 주욱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그대로~~~

글 지원숙

\*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 남도경은 현재 15살입니다. 이 글은 도경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엄마 지원숙이 딸 도경이의 입장이 되어서 쓴 글입니다.

## 친구 회원

### | 평화를품은집 친구들

강성현, 강승민, 강승희, 강원, 강은영, 강은진, 강태봉, 강호상(유진희), 강효진, 경성례, 고건녕, 고미란, 고예슬, 고정희, 고희준, 권문혁, 권오청, 권윤덕, 권은숙, 권은희, 권현옥, 김여은,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귀분, 김길미, 김길한, 김나영, 김동수, 김무연, 김문규, 김미애, 김미희, 김민경, 김민정, 김병국, 김병훈, 김상욱, 김서경, 김선기, 김선숙, 김선애, 김선웅, 김선희, 김성범, 김세경,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승현, 김승현(순천), 김심환, 김애란, 김영미, 김영수, 김옥분, 김요섭, 김용숙, 김우연, 김월향, 김윤정, 김은미, 김은숙, 김은영,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장환, 김재순, 김정민, 김정아, 김정우, 김종임, 김지영,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지희, 김찬미, 김태은, 김태형, 김태희, 김해정, 김현국, 김현옥, 김현정, 김혜진, 김혜진, 김희남, 김효정, 김희남, 나귀래, 나상희, 남철우, 남형주, 노영주, 노재현, 류묘선, 마명진, 명소혁, 명수영, 명순재, 명정아, 명형란, 문병천, 문소정, 문연희, 문영신, 문정아, 문준서, 문해진, 문향자, 문혜정, 민지영, 박경렬, 박경림, 박경진, 박경희, 박그림, 박기범, 박기섭, 박대현, 박명희, 박미숙, 박미진, 박병구, 박병수, 박선영, 박소현, 박소희, 박수연, 박영미, 박영옥, 박영은, 박영주, 박은경, 박은주, 박이선, 박인애, 박재경, 박정민, 박정순, 박정실, 박정원, 박제성, 박종국, 박종현, 박준환, 박지선, 박지연, 박지영, 박진희, 박찬교, 박채란, 박현경, 박현정, 박희영, 박희옥, 배경희, 배문경, 배민경, 배수권, 백경천, 백옥진, 백창화, 변영이, 산남푸르지오작은도서관, 서은주, 서정주, 서진선, 설문수, 성서연, 성태영, 성현경, 소미자, 소순덕, 손경희, 손주연, 손희경, 송명화, 송민준(장경선), 송연옥, 송영희, 송재찬, 송필종, 송향숙, 신민식, 신수영, 신수진, 신순호, 신유나(더불어꿈), 신일연, 신정현, 신정화, 신춘우, 심명자, 심승희, 심용숙, 안이정선, 안효숙, 양경화, 양은선, 양은영, 양지숙, 양현아, 양희정, 엄미애, 엄상연, 엄지선, 여민혜, 여희숙, 연옥진, 엄범석, 오동근, 오명숙, 오수정, 오연희, 오원배, 오진희, 온윤숙, 왕현숙, 용정순, 우선화, 원재민, 원현정, 유경희, 유순희, 유영미, 유예진, 유윤주, 유은주, 유인창, 유정연, 유지훈, 유현옥, 윤미경, 윤선라, 윤성실, 윤정란, 윤정애, 윤정연, 윤정자, 윤주영, 윤현숙, 윤형진, 윤혜린, 이강, 이경옥, 이경원, 이경탁, 이관희, 이권우, 이덕완, 이동선, 이동현, 이명아, 이미, 이미숙, 이미희, 이민아, 이바다, 이방윤, 이백식, 이상구(씨알예배공동체), 이선화, 이성희, 이송현주, 이숙향, 이순정, 이승희, 이승희, 이애정, 이용화, 이운정, 이유정(적성성당), 이유진, 이은미,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의향, 이재화, 이정옥, 이정주, 이종민, 이지선, 이지수, 이진희, 이채원, 이철관, 이충희, 이항구, 이현숙, 이혜란, 이호성, 이호준, 이호진, 이화중, 임병우, 임석현, 임수민, 임순경, 임영택(순천), 임용석, 임인선, 임재원, 임지연, 임현주, 임혜숙, 장준호, 장휘국, 전송자, 전이루, 정경숙, 정경이, 정기재, 정나경, 정락윤, 정만성, 정명자, 정병규, 정봉남, 정소영, 정소희, 정승기, 정영미, 정영미, 정용선, 정용후, 정우진, 정원경, 정은숙, 정은주, 정진이, 정진희, 정진희, 정필숙, 조국주, 조남현, 조두극, 조명숙, 조병익, 조석현, 조성우, 조성환, 조세라, 조영현, 조용란, 조용식, 조용진, 조원영, 조윤정, 조정아, 조정애, 조정원, 조준훈, 조철하, 조철현(BNM닷컴), 조향숙, 조형익, 주미라, 지원숙, 진일, 차정규, 채주연, 채판수, 책과아이들,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천호균, 최경숙, 최광은, 최동명, 최문숙, 최석태, 최선미, 최선진, 최소영, 최영미, 최옥미, 최인희, 최종복, 최진, 최해숙, 하선희, 하희정, 한명희, 한민우, 한백희, 한복, 한상수, 한석봉, 한소라, 한순웅, 한원우, 한은정, 한은정, 한흥우, 함승연, 허기, 허인자, 허채봉, 홍성담, 홍은경, 홍은아, 홍자영, 홍효기, 황공주, 황명숙, 황세림, 황수경, 황인종, 황지원, 황진희, 황현주, (주)노바건축사사무소, (주)서정바인텍, (주)에스제이피앤비, (주)한림출판사

## 단체 방문

나르샤 (인천시 역사동아리), 여수 그림책 모임, 인천교육청 학부모 기자단, 다울 방과후 학교, 금천 지혜의 숲 도서관, 하나되는 교회, 녹양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 ( '평화의 인문학'), (어린이 평화학교 1기)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파주지회(책올림) 양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고양 하늘빛 도서관 어린이 사서단 1기,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교하도서관, 운정지역 학부모모임, 대전 진원 작은도서관, 스무습 도서관, 부천시민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광주 대한 독서문화예술협회, 부산 느티나무도서관, 노미숙 그림책 연구소, 용연초6학년, 하성중학교, 꽃다운 친구들, 교하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군산화현중학교, 어린이 꿈의학교, 책풍경,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자, 금산군 가족통합지원 센터, 두레생협 일본생협, 마하 어린이도서관, 은평혁신교육 지원단, 천보중학교, 에꼴드지니 어린이집, 선유3단지 어린이집,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교육센터,극단 올리브와핀콩, 평화사목회, 담양한빛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성목사연합회, 씨알공동체, 파평초등학교 전학년, 한베재단, 파주시청문화관광과, 대전진원도서관, 춘천해님도래지역아동센터, 춘천중앙지역아동센터, 충북작가회의, 덕양중학교 교사, 부산A창작작가들

## 후원금

소라브레드,최삼진, 이해란,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순천기적의도서관, 권윤덕, 이순정, 강중훈, 이용훈, 강진갑, 광주대한독서협회, 목성그림책마을, 김미애, 사계절출판사, 명연파, 황수경, 최병기, 박채란, 애물장터참여자

## 2016년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살림살이

2016년 12월말 현재 528명의 후원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열심히 활동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 | 수입

정기후원회비	29,800,000
부정기후원금	10,000,000
입장료	2,200,000
프로그램진행비	9,900,000
기타판매수입	2,000,000
파주시지원금	5,201,000
경기도지원사업	9,342,000

**총계 68,443,000**

### | 지출

도서구입비	3,000,000
사업진행비	14,712,420
일반운영비	48,287,000
(급여포함+임차료+일반경비)	

**총계 65,999,420**  
**잔액 2,443,580**

##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에서 만든 자료집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전쟁의 상흔, 평화로 풀다** 한국전쟁중 파주지역 민간인 학살터를 답사하며 만든 자료집  
**평화로 만나는 우리마을 이야기** 평화도서관이 있는 두포리, 마산리 마을을 1960년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  
**평화를품은집에서 추천하는 평화책** 국가별 제노사이드 책 목록과 평화그림책 목록집

### 운영 안내

#### [문 여는 시간]

10월~3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 4월~9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문 닫기 30분 전에는 입장해 주세요.

#### [휴관일]

명절(설·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 평화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과 다락갤러리는 유료 시설입니다.(10세 이상)
- ▶ 평화를 품은 집 친구 회원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무료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3,000원

### 예약 안내

#### [평화를 품은 집 단체 견학]

- 10인 이상 단체 방문은 미리 예약해 주세요.
- 단체 견학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입장료와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전시 해설을 원하는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영화 상영 예약]

평화를 품은 집 홈페이지(<http://www.nestofpeace.com>)의 평품소극장 소식에서 영화 상영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미리 전화(031-953-1625)로 예약해 주세요.

#### [대관 안내]

워크숍, 모임 등의 이유로 대관을 원하실 때에는 적어도 2주 전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빔프로젝터나 마이크 등의 장비를 이용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알려 주세요.)

#### [북스테이 원고예약 안내]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나만의 작은 평화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http://bookstaynetwork.com/wp/?page\\_id=388](http://bookstaynetwork.com/wp/?page_id=388))

#### [전시 콘텐츠 공유]

-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의 전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제안서와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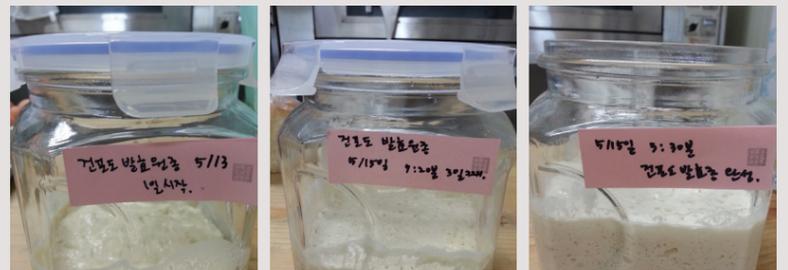
### 소라의 건강빵 연구소 '소라브레드' 이야기 ②

이스트(빵을 부풀리게 하는 첨가제)를 쓰지 않고 빵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천연발효종을 키우는 것도 까다롭지요. 알맞은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해요. 그래야 발효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발효종이 쉬어버리니 긴장을 늦춰선 안 돼요.

#### 천연발효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천연발효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발효액종을 만들어야 해요. 기름으로 코팅되지 않은 건포도, 마스코 바도, 정수 물을 소독한 유리병에 넣어 22℃ 정도 되는 곳에서 5-6일간 발효시킵니다. 이 발효액종을 키울 때도 온도와 습도가 맞는 최상의 장소를 잘 찾아 줘야 해요. 저는 여름엔 주로 온도가 낮은 지하 창고를, 겨울엔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골방을 이용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맞지 않아도 곰팡이가 피고 건포도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건포도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아 있다면 곰팡이처럼 하얀 막이 여기저기 생겼거든요.



건포도가 부글부글 끓어 물 위로 뜨면 발효액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발효액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요. 그런 다음 발효액에 밀가루와 소금, 물을 넣고 24시간 발효를 시켜 '발효원종'을 만듭니다. 이 발효원종을 두 개로 나눠 밀가루, 소금, 물을 넣어 12시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발효원종 두 개를 네 개로 나눠 각각 밀가루, 소금, 물을 준 후 6시간 동안 발효를 더 시키면 천연발효원종이 완성됩니다.

반죽을 할 때 이스트 대신 이 발효원종을 넣어 빵을 발효시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1차 발효시간이 1시간이면 충분한데, 천연 발효종을 넣게 되면 1차 발효만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천연발효빵을 만들려면 발효종을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해요. 발효종을 만드는 중간에 발효종이 쉬어버리거나, 곰팡이가 나면 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발효종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회원 안내

평화를 품은 집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부, 재능후원, 자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 [친구 회원]

CMS를 통해 월 2,000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 친구가 되시면

- ▶ 평화를 품은 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평품소극장, 다락갤러리)
- ▶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 ▶ 평화를 품은 집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 [재능후원과 자원활동]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평화를 품은 집을 만들어 가는 데 나누어 주세요.

- ▶ 관련 도서 및 자료 / 먹거리 / 비품 / 시설물 / 기부금

#### [기부]

저마다 지닌 소중한 능력을 나누어 주세요.

- ▶ 도서 정리 / 번역·통역 활동 / 홈페이지 관리 / 교육 활동 / 뉴스레터 제작 / 자료 제작
- \* 자세한 내용은 031-953-1625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